

#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b>주임신부</b> Fr. Bartholomew Choi 최기홍 바르톨로메오 (510) 562-3843 email : meoamor@gmail.com  <b>사목회장</b> 명광식 니콜라오 (510) 332-8782 email : myoungkwangsik@gmail.com	<b>사무실</b> Tel (510) 553-9434 Fax (510) 639-4842 email : standrewoak@gmail.com 화, 금 휴무  <b>선종봉사회장</b> 팽현팔 하비에르 (510) 847-3014
---	--

미사	주일미사	오전 8시, 11시 영어미사 : 매월 마지막 주 오후 4시
	평일미사	화, 목요일 오후 7:30 수, 금, 토요일 오전 7:30

성사	고백성사	매 미사 30분 전
	유아세례	사무실에 신청
	혼배성사	3개월 전 사무실에 신청
	환자봉성체	매월 첫 목요일

신심 단체	레지오마리아	매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성령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향심기도회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대건회관
	지속적인성체조배	매월 첫 금요일 9PM ~ 토요일 7AM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와 함께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9시 반 교육관 106호실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한국학교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 < 사순 제 5주일 3월 29일 미사 전례 >

**[입 당 송]** 시편 43(42), 1-2 참조  
하느님, 제 권리를 찾아 주소서. 불충한 백성에게 맞서 제 소송을 이끌어 주소서.  
거짓되고 불의한 자에게서 저를 구해 주소서.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의 힘이시옵니다.

**[제 1독서]** 예제 37, 12-14

**[화 답 송]** 시편 130(129), 1-2.3-4.5와 6-7.7-8(◎ 7-8)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제 2독서]** 로마 8, 8-11

**[복음환호송]** 요한 11, 25, 26 참조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

**[복 음]** 요한 11, 1-45

**[영성체송]** 요한 11, 26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불만에 떨며 온갖 갈등과 불신과 이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마는 모습을 보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미약하고 초라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두려운 것은 그것이 일으키는 폐렴이라는 병 때문이다. 하지만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일은 나이 먹어서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한다.

사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오늘 복음에서 들었듯이 죽어서 냄새나는 라자로의 모습과 별로 다를 바 없다. **수의를 두른 그의 모습은 생명의 필연적인 조건이다.** 우리의 삶은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성공한 것이라 해도 향기 없는 꽃에 지나지 않는다.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를 느끼고 자기 자신의 궁극적인 갈망을 채워주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있는 듯하면서도 없고 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아지랑이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예수님께서 그런 하찮은 삶을 마감한 라자로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시고 그를 다시 이승의 삶으로 불러내셨다는 것이다. 그냥 두었더라면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묵시 21,4)”** 영원한 생명을 살았을 라자로를 무엇 때문에 불러내신 것일까? 그런데 더욱 이상한 일은 그렇게 라자로를 다시 살려주신 분이 정작 자기 자신을 십자가상의 죽음에 부치셨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복음 말씀은 죽음과 같은 절망 한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친구처럼 다가와 붙들어 주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을 보여준다. 죽음이라는 필연적인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포에 떨고 좌절하고 고통받아야 하는 인간을 감싸주시는 하느님, 더 나아가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새 희망으로 제시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제 1독서에서 예제키엘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무덤과 같은 노예살이에서 해방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하느님에 대한 희망의 말씀을 전한다. 바로 그 하느님의 모습을 예수님은 라자로의 소생을 통해 몸소 보여주신 것이다.

영원이라는 보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살고 죽고 얻고 잃는 것은 하찮은 뜬구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시인 괴테도 이렇게 말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 행복을 나는 아무에게도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미래의 생명에 희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다 하더라도 모두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예수님을 잃는 것은 절대적인 고통 속에서 유일하게 함께 있어 줄 수 있는 친구를 잃는 것과 같다.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 자신의 궁극적인 희망을 잃는 것과 같다. 봄이 와서 모든 것이 소생하고 주님 부활을 얼마 남겨 두지 않은 때에 자신의 진정한 삶과 죽음의 문제를 곰곰이 반성해보자!

이태혁 요아킴 신부  
춘천교구 양덕원본당 주임

## -미사지향

날짜		지향	봉헌자	날짜		지향	봉헌자
3/29(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김중화/이열자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생	부모님	윤루카/루시아
	연	김에드워드(지성)	김케네스 가족		생	조모나셀라(경애)	가족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영국)		생	송토마스(인환)	송수산나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전마리나/아네스	3/31(화)	연	고야고보(명재)	임클라라(은석)
	연	주요셉(봉진)	주마리아(정희)	4/2(목)	연	공동체선종연령	선종봉사회
	연	주요셉(봉진)	이에스터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영국)
	연	유데레사(춘성)	가족		생	이야고보(원진)	이바오로(영국)
	연	심아브라함(재구)	가족	4/4(토)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오로(영국)
	연	황마르코(문환)	가족		연	전안드레아/정야고보	전알렉산델/스텔라
	연	정베드로(창희)	정아가다(청자)		연	주요셉(봉진)	주마리아(정희)
	연	박안드레아(추웅)	가족		연	허마태오(동선)신부	전데레사(윤자)
	연	최모니카(임구)	최안드레아(용석)		생	김데레사(종숙)	임클라라(은석)
	연	김모니카(영자)	가족		생	송윤관	송베로니카
	연	허마태오(동선)신부	박시몬				

복음을 읽고 실천하는 공동체 / 신앙의 진리를 끊임없이 배우는 공동체

- 3월 15일 우리의 정성

구분	8시 미사	11시 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31	91	122
헌 금	\$296	\$714	\$1,010

< 교무금 > \$3,710  
 김영민(3) 김영희(3-4) 정병구(3-4) 이선미(3-4) 김관숙(3)  
 이건호(1-12/19, 1-3) 김세록(1-3) 이범준(3)  
 < 성소후원금 > \$80  
 정병구(3-4) 이선미(3-4)  
 < Bishop's Appeal > \$60  
 김영민(3) 이선미(3-4)  
 < 부활초/꽃 > -  
 < 감사헌금 > 박영실  
 < 3월 22일 우편으로 보내주신 주일헌금 > \$ 415  
 < 우편으로 접수된 교무금 > \$2,350  
 유인웅(1-3) 정일양(3) 이선영(1-2) 천종욱(3) 육승주(4)  
 지영남(1-4)  
 < 빈첸시오 노숙자를 위한 기부금 > \$5,404  
 주임신부, 이기하, 임유지, 김명환, 익명, 황순정, 이명국, 이선미,  
 심데레사 가족, 전윤자, 주정희, 이경섭, 황혜정, 천종욱, 육승주,  
 정일양

< 2020 비전 목표 >

- ♡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 ♡ 신바람 나는 공동체
- (성령의 은총이 가득한 공동체)

< 실천사항 >

1. 하느님과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
2. 복음을 읽고 실천하는 공동체
3. 신앙의 진리를 끊임없이 배우는 공동체
4.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공동체

\* 성당 시설이나 비품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 오클랜드 교구 내 한인성당 안내 ◆◆◆◆◆◆◆◆◆◆

트라이밸리 성 정하상 한인 천주교회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주임신부 : Fr. John Kim 김종광 사도요한

주일미사 : 오전 9시(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평일미사 : 화, 수, 목, 토요일 오전 9시 30분

425 Boulder Ct. #400 Pleasanton, CA 94566 사무실 전화 : 925-600-0177 [www.tvkcc.org](http://www.tvkcc.org)

<p>광고문의 사무실 510-553-9434</p>	<p>좋은 사람들, 좋은 이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p>  <p>SHINSEGAE TRAVEL 510-688-0155 이 베로니카 510-688-0157 이 레이몬드</p>	<p>정 태준(안토니오) 자동차정비 &amp; 바디 Work</p> <p>929 38th Ave. Oakland, CA 94601 ☎ 510-552-4418 Fax 510-535-0818</p>	<p>한인 크레딧 유니온은 금융기관입니다. 자동차대출, 체크킹, 적금</p> <p>2368 El Camino Real Santa Clara (408) 260-0900</p>
<p>송 이 웅 법 무 (510)292-6050 ldanea.song@gmail.com 1723 Telegraph Oakland</p>	<p>조미정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및 회계감사 Business Consulting</p> <p>☎ (925)803-0200 ☎ (510)504-9250</p>	<p>J &amp; J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와 바디수리</p> <p>☎(510) 236-0550 강 요한</p>	<p>맥정(말가리다) 공인세무사 · Income Tax · 세무장부정리 · 신규회사 설립 · 경영, 재정상담</p> <p>☎ (510)893-2377 2633 Telegraph Ave. #213 Oakland</p>
<p>대 건 한 의 원 한의학박사 이 준 침·한약·체중조절·통증조절·체질감별·건강상담</p> <p>401 Roland Way #225 Oakland (510)444-1010</p>	 <p>데비 양(데보라) 보험</p> <p>3484 Stevens Creek Blvd. San Jose, CA 95117 408-261-1623   Lic.#0651968</p>	<p>냉장고,세탁기,Oven,Dishwasher TV/Computer Repair</p> <p>(510)896-8348 LVM (510)304-7956 Cell 조승구 요셉</p>	<p>+성지순례 전문+ <b>ANGEL</b> Tour &amp; Travel, Inc. 757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대표: 이 경혜 안젤라</p> <p>Tel. <b>213-999-6294</b> e-mail: <a href="mailto:angeltourtravel@gmail.com">angeltourtravel@gmail.com</a> <a href="http://www.angeltourtravel.com">www.angeltourtravel.com</a></p>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공동체